

## 고양이야, 미안해

토요일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모퉁이에서였습니다. 어디에서인가 야릇한 소리가 났습니다. 가냘프지만 무척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아!’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불과 이삼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애앵, 애앵, 애애앵.”

고양이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거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들여다보니 몸집이 작은 새끼 고양이었었습니다. 어디인가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꼬리 근처에 똥도 한 무더기 싸 놓았습니다. 더러워서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고양이는 끊임없이 “애앵, 애앵.” 하고 울었습니다. 웬지 살려 달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나?’

그냥 두고 떠나기에는 고양이가 무척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문득 학교에서 받은 우유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가방 안에서 우유를 꺼내 고양이 앞에 살살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꾀죽도 않고 계속 비명만 질렀습니다.

“아야, 아야, 아야.”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사실 나는 애완동물을 길러 본 적이 없습니다. 웬지 징그러운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미나가 자기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은선아, 한 번 안아 봐.” 하고 내게 건네주면 마지못하여 잠깐 안았다가 얼른 미나에게 돌려주기 일쑤였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언니가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째? 쫓쫓.”

언니는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안쓰러운 듯 한두 번 쓰다듬더니 나를 보고 어깨를 으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다음에는 고등학생 오빠들이었습니다.

“야, 야, 고양이가 죽어 가잖아. 네 고양이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햇살이 눈을 찢러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입니다.

“안됐다. 가자.”

고등학생 오빠들은 불쌍한 듯 바라보다 가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새끼 고양이는 계속해서 울어 대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저런, 새끼 고양이네. 차에 치였나? 가엾어라.”

아주머니께서는 고양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고양이 아니에요.”

나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지?”

아주머니께서도 혀를 끌끌 차더니 떠나 버리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고양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맞다. 동물 병원!’

그제야 동물 병원이 생각나다니요. 우리 아파트 상가에는 동물 병원이 있습니다. 동물 병원 유리문에는 ‘애완동물을 가족처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동물 병원 의사 선생님이라면 틀림없이 새끼 고양이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달음박질하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나는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하얀 가운을 입으신 동물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미소를 띠며 나를 맞으셨습니다.

“저기요.”

나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길에서 죽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다고 하였습니다.

“음, 그러니? 그럼 고양이를 이리로 데려와야지. 그래야 치료할 수 있지.”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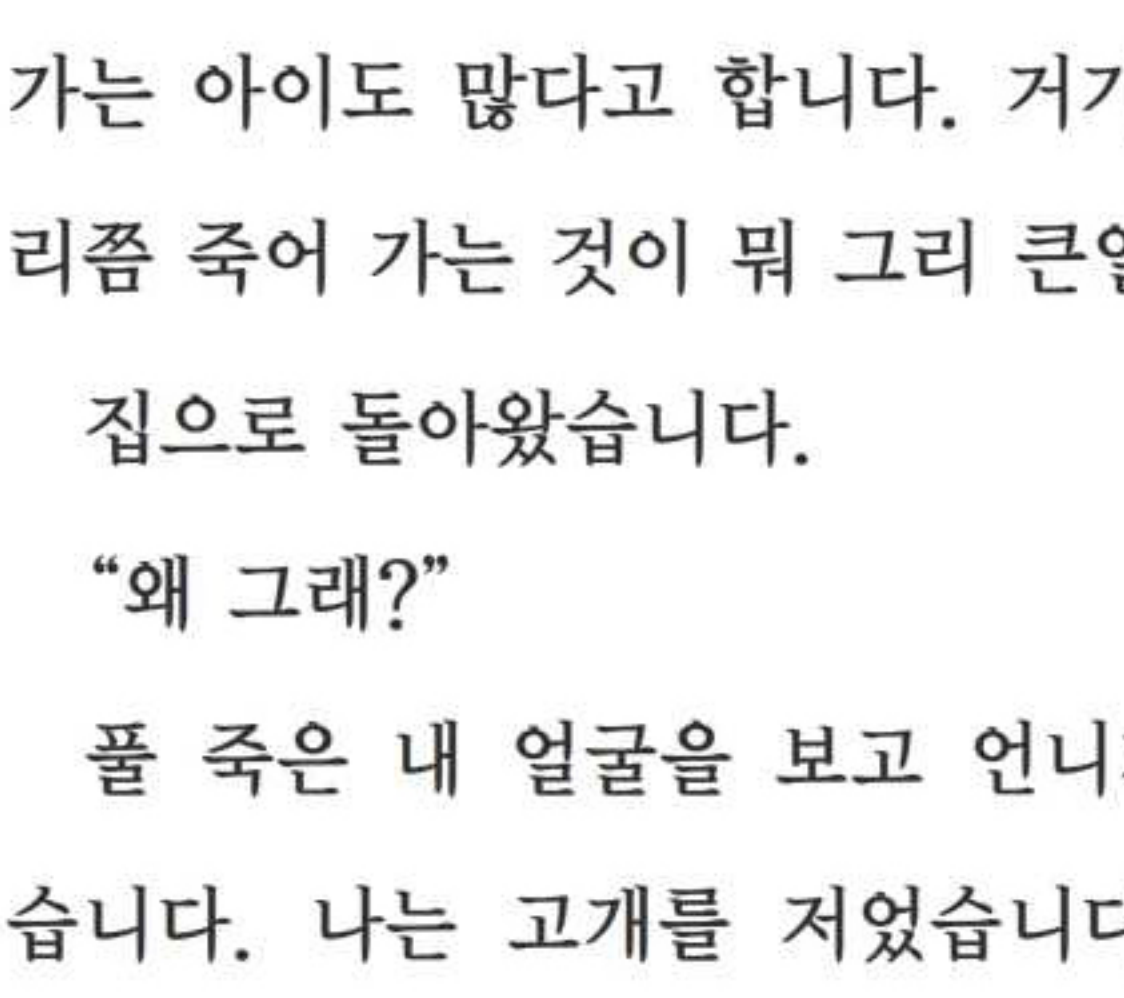
순간, 나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어쩌면 열이 펄펄 날지도 모르는 고양이를, 또 꼬리에 똥이 묻은 고양이를 안아서 데려와야 한다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셔서 치료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동물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른 동물을 치료하러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동물 병원 안에는 어여쁘게 치장한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바스락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의 이야기를 하는데, 콧등이 시큰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미나는 나를 뻔히 쳐다보았습니다. 미나라면 당장 새끼 고양이를 데리러 가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나는 ‘그래서 뭐 어쨌다고?’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새끼 고양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렇게 새끼 고양이가 불쌍하면 네가 데려다 주면 되잖아. 네 돈으로 치료해 주고, 네가 데려다 길러.”

미나는 뿔로통하여 가시처럼 톱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냥 미나네 집을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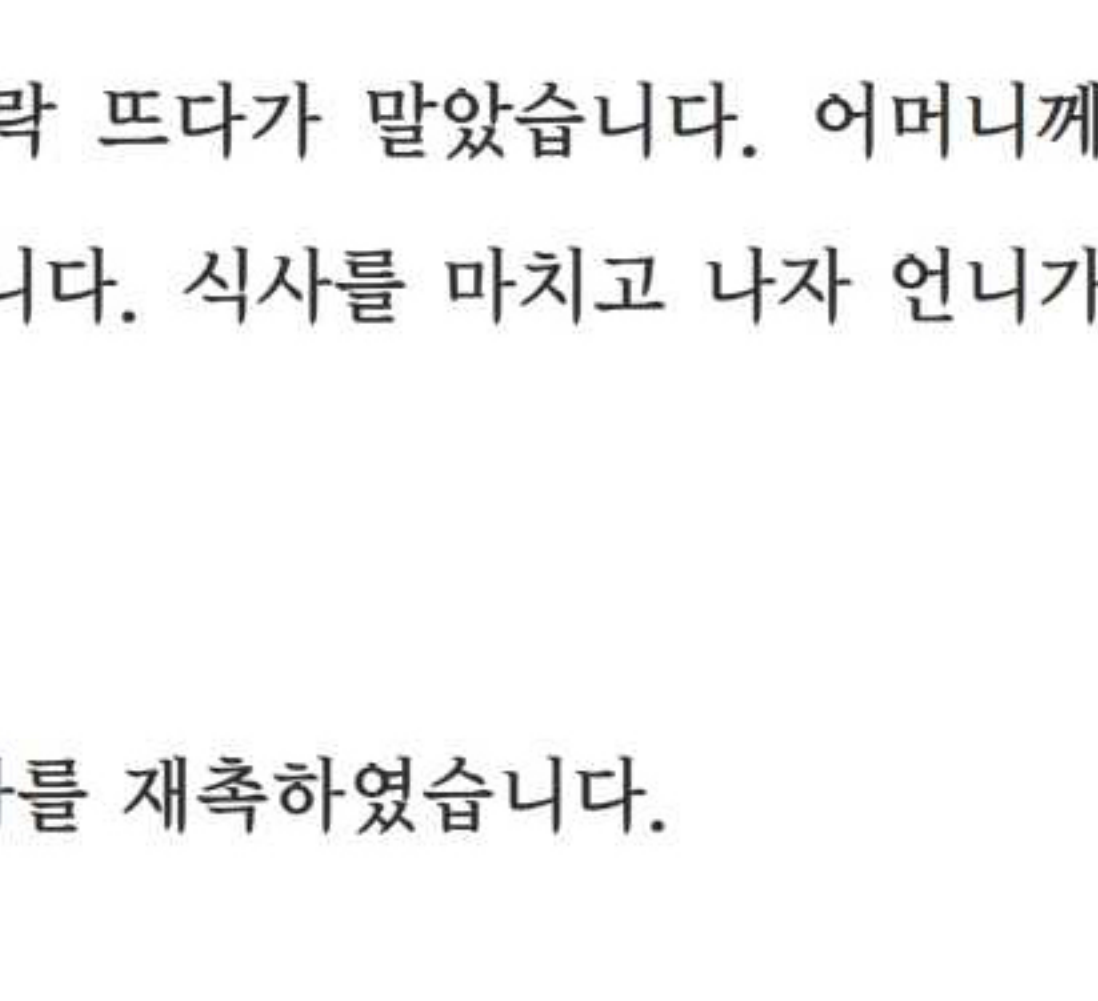
‘누군가 어떻게 하겠지. 내가 알게 뭐야?’

그냥 잊어버리면 될 일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도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까짓 병든 새끼 고양이 한 마리쯤 죽어 가는 것이 뭐 그리 큰일 날 일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

풀 죽은 내 얼굴을 보고 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꾸만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욕실로 가면 욕실로,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자꾸만 고양이는 따라다니며



“아야, 아야.” 울어 대는 것이었습니다.

‘아아!’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은선아, 너 어디 아프니?”

“아니야.”

괜히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럼 왜 그래? 미나랑 싸웠니?”

언니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언니, 고양이 만질 줄 알아?”

밀도 끝도 없는 말에 언니가 눈을 둥그렇게 뿔었습니다. 나는 언니에게 새끼 고양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물 병원에 갔던 일도, 미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참, 애가 왜 이래? 그냥 잊어버려. 죽으면 환경미화원 아저씨께서 치우실 거야.”

언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는 언니도 미웠습니다.

저녁때였습니다. 밥맛이 없어 몇 손가락 뜨다가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밥보가 웬일이야?” 하며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언니가 내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곳이 어디야?”

언니는 검정 비닐봉지와 꽃삽을 들고 나를 재촉하였습니다.

“정말, 언니가 같이 갈 거야?”

“밥도 안 먹고 그러는 너를 보니 아무래도 용감한 이 언니가 도와주어야겠어. 고양이가 살았다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죽었다면 땅에 묻어 주자.”

나는 그때처럼 언니가 고마운 적이 없었습니다.

“요 맹꽂이야,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용기를 내야지. 너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죽은 휴머니스트라고 그러는 거야.”

언니는 편견하듯 나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나는 언니의 말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행동은 안 하고 동정만 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새 골목은 가로등 불로 환하였습니다. 모퉁이가 가까워지자 나는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이따금 뽕뽕거리는 자동차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져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여기야?”

먼저 간 언니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달려갔습니다. 고양이는 있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검정 비닐봉지 몇 개만 휘날릴 뿐이었습니다.



“누가 데려가서 치료해 주었을 거야.”

언니가 위로하듯 말하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환경미화원 아저씨께서 고양이를 치워 버리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양이야, 미안해.”

가슴이 먹먹하여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